

너를
상상하며

너를 상상하며

김지희
그림
성혜경
글

김혜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사는 세상
정해지지 않는 길을 달려

우리가 사는 세상
매일 아름다운 상상을 하지

김해에 뿌리를 내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야

내가 가는 길

너를 만나는 하루하루가
가슴을 뛰게 만들지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멋진지 몰라

너를 상상하며

part 01

시작하며

빨간 모자가 잘 어울리는 통기타 연주자
강영선 _____ 10

고난이 글밭이 되고
강평원 _____ 14

생활 속 예술인, 서양화가
고인숙 _____ 16

흥겨운 우리 가락
김선희 _____ 18

글로벌 패션 인재를 디자인하는
김소라 _____ 22

곰곰한 펀치니들
김혜영 _____ 24

예술을 담다, 전통을 닦다.
류다인 _____ 26

한땀 한땀 장인의 정성으로
배정임 _____ 28

김해문화 수집가
양민주 _____ 30

정으로 음악 봉사하는
이영송 _____ 32

불상의 어머니
정봉환 _____ 34

진영시장 통기타 가수
정성우 _____ 36

자연의 이름으로 산딸기를 키우는 시인
최석용 _____ 38

잊지 못할 순간에
한예슬 _____ 40

미소처럼 숨씨가 이쁜
허승주 _____ 42

김해 가야금의 대모
황정숙 _____ 44

part 02

문화예술의 향기 속 대중음악 예술인
김성훈 _____ 48

복을 비는 진영의 희망지기
김애리 _____ 50

스토리텔러(Storyteller)
박경용 _____ 54

지속 가능한 문화의 다양성을 창출하는
신현승 _____ 56

특별한 목소리, 낭독 봉사
여채원 _____ 58

김해여성문화의 산실
최선화 _____ 62

part 01

빨간 모자가 잘 어울리는 통기타 연주자

강 영 선



영선 씨가 화포천 따라 천천히 걸어요. 풀냄새 강물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네요. 화포천이 물비늘을 만들며 흘러요. ‘음음!’ 허밍을 시작해요. 기타를 가져왔으면 더 좋았겠어요.

젊었을 때 간호사였던 영선 씨는 정이 많아요. 간호조무사 학원과 요양원을 운영하느라 바쁘게 살면서도 유기견도 돌봐요. ‘썸플라워’에서 8년째 통기타도 가르쳐요.

한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쉬어야 했어요. 그래도 회원들은 열심히 연습을 계속했어요.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서 언제나 눈부신 합주를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보니 회원 수도 30명이나 되었군요.

‘라이브 가수가 되는 그날까지!’
썸플라워 슬로건도 정했는데 어때요?

기타를 안고 차분하게 의자에 앉아요. 파란 하늘과 빨간 모자가 참 어울리네요. 지나던 바람도 잠시 머물고 관객들도 숨죽여 바라봐요.

‘차르랑~’

기타 줄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 마음이 코스모스처럼 일렁여요. 모두 손뼉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죠. 통기타에 수많은 악기가 더해져요. 재주꾼이군요.

통기타의 매력이 뭐냐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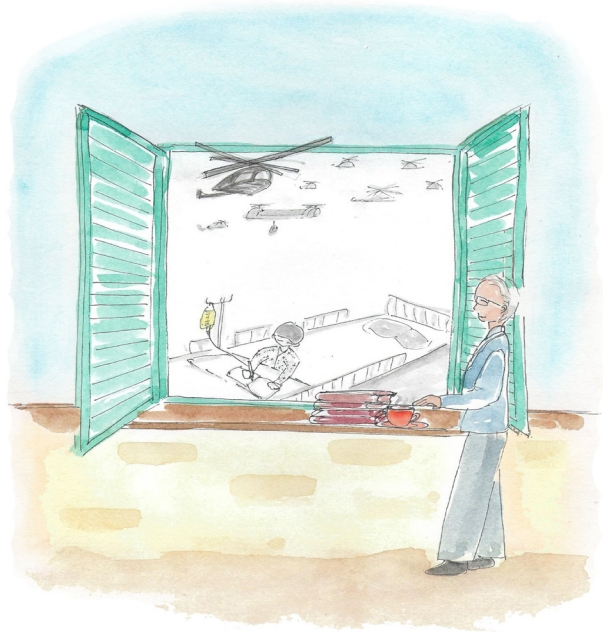
기타를 안아 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누구나 다가갈 수 있어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손가락 끝에 박힌 굳은살 만큼 실력도 깊어져
요. 무엇보다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함께 기타 선율
에 감동하고 행복해져요.

기타는 마음속 깊은 낭만도 피어오르게 해요.
참... 봄날 햇살처럼 고운 사람이지요!



고난이 글밭이 되고

강 평 원



평원 씨는 재야 사학자이자 소설가예요. 글을 쓰기 시작하면 6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집중하지요. 그러다 엉덩이에 땀띠가 나서 병원에 간 적도 있어요.

책을 발간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열여덟 살에 군대에 자원입대하여 '육군하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대북 테러부대에서 근무하며 두 번이나 북파공작원으로 일했지요. 제대해서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했고, 이후 공장이 두 개나 딸린 중소기업을 운영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병원에서 지내며 글을 쓰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애기하사·꼬마하사 병영일기』를 썼어요. 책에는 군대 생활하면서 허혈성심장질환을 앓은 내용도 들어 있어요. 휴전선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사실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김해와 관련된 곡의 노랫말도 지었죠.
<김해연가>, <김해 아리랑>은 가야 설화가 살아 숨 쉬는 김해에 어울리는 노래지요.

생활 속 예술인 서양화가

고인숙



별 좋은 창가에 차반이 차려져 있네요. 가까이서 보니 만질만질한
꽃돌 한 접시, 노란 빨간 털옷 입은 돌이 두 개가 놓였어요.
웬 꽃돌이냐고요? 돌에 양증맞은 들꽃이 그려졌으니 꽃돌이지요.

살랑살랑 꽃향기가 날 것만 같아요.

마당 벽화가 한눈에 들어와요. 노란색 단발머리, 수줍은 듯 눈길을
피하는 소녀가 기타를 안고 있어요. 황~ 그림 속에서 기타 소리가 날
것만 같아요.

앗! 커다란 통창에 그림 한 점이 걸렸어요. 눈을 비벼보니 인숙 님
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군요. 호호, 서로 멧쩍어서 마주 보고 웃었어
요. 무한한 상상이 일어나는 여기는 바로 <고쌤 미술실>이에요.

“예술은 생활 속에 묻어 있어요. 차 한잔 마실 때도
어디서 어떤 잔에 마시느냐를 생각하면 예술 행위가 되지요.”

17~18세기 프랑스에는 살롱(salon) 문화가 있었어요. 살롱은 프
랑스어로 ‘응접실’을 뜻해요.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문화가 고쌤미술관에서 재현
되고 있어요.

외롭거나 힘들 때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예술 한 스펀 넣어보시라!

흥겨운 우리 가락

북장단에 소리가 가락을 타기 시작해요. 고수의 추임새가 소리를 이끌고 질부채가 허공 나직이 선을 그어요.

김선희



무대 중앙에 쪽머리에 붉은 한복 입은 소리꾼이 자리를 잡았어요.
하얀 동정은 흥매화 닮은 단아한 맵시를 가다듬어요.

탁! 허~ 훗~

능소화 흐드러지는
돌담길 끝에 펼쳐진
수로와 황옥이 거닐던 수로왕릉
좋고도 좋~구나~

김해 땅 낙동강 흘러드는
바다까지 흰히 뵈고
저녁놀 물드는 분성산도
좋고도 좋~구나~

<가야왕도 김해>는 가야왕도를 생각하며 노랫말을 붙여 만든 곡
이에요. 김해를 알리는 곡이 되겠지요?

열두 살 때부터 소리를 공부하고 국악을 전공했어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로 문화재청에 등록될 정도로 인정받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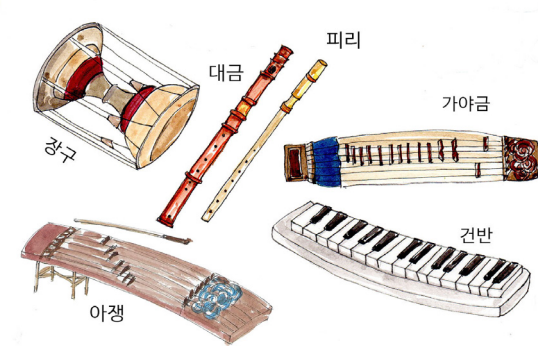
<국악예술단 별신>이라는 퓨전 국악 그룹을 이끌어요.

'별신'이라는 뜻이 궁금하지요?

'좀 별난 사람이 모여서 신나는 음악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선희 씨가 소리를 하고, 나머지 파트는 대금·아쟁·피리·장구·드럼·
건반·가야금으로 구성되었어요. 다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어
서 자부심이 대단해요.

선희 씨의 자부심은요, 아름다운 곡을 창작하는 거예요!



글로벌 패션 인재를 디자인하는

김 소 라



패션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어요. 몸을 보호하는 기능에 미적 요소가 더해지면서 발전해 왔지요. 패션 인재를 배출하는 일은 아무도 직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잠시 패션쇼를 상상해 볼까요.

패션쇼가 시작되는 배경음악이 흐르고 화려한 조명이 깔리면 모델들은 멋지게 걸어요. 관객들의 눈길이 일제히 모델을 따라가죠. 빛나는 작품들의 소개가 이어지고 쇼의 마지막에 다다랐어요. 디자이너가 앞으로 나와요. 모델들과 인사하면 객석에서 갈채가 터져 나오지요.

옷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살펴보죠. 디자인에서부터 재단, 바느질하며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손길을 거치겠지요.

‘짓는다’라는 말은 어떤 때 쓰이는 말일까요?
집 짓다, 밥 짓다, 농사를 짓다... 그래요,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한 일에 쓰는 말이지요. 예전에는 옷도 짓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사람에게 고귀한 일이라는 뜻이겠지요.

소라 씨는 평생 패션에 몸담은 분이예요. 직업학교에서 패션 분야의 학생들을 교육해서 취업을 도와요. 패션 작품 활동과 대학 강의도 해요. “김해 토박이여서 김해에 애정이 깊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김해를 대표할만한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픈 꿈이 있어요.”

소라 씨의 바람대로 가야왕도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김해 거리에
패션 물결을 기대하세요!

곰곰한 펀치니들

김혜영



뽕·뽕·뽕!

수틀에 끼워져서 팽팽해진 천을 콕콕 찌러요. 바늘이 엄청 크네요.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것 같아요. 밑그림이 점점 예쁜 실로 채워져요.

혜영 씨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펀치니들을 해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빼곡하네요. 토끼가 당근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귀여운 액자가 눈에 띄어요.

다른 작품들도 구경해 볼게요. 오잉? 채반 위에 찹쌀떡이 있어요. 가까이 가보았더니, 깜짝이야! 펀치니들한 작품이었어요. 한 손에 들어올 만큼 복슬복슬한 작품이 노란 콩고물 잔뜩 묻은 찹쌀떡인 줄 알았지 뭐예요.

“펀치니들(Punchneedle)은 서양 전통 공예라고 보면 돼요. 미국에 아메리칸 퀼트가 있다면, 영국에는 펀치니들이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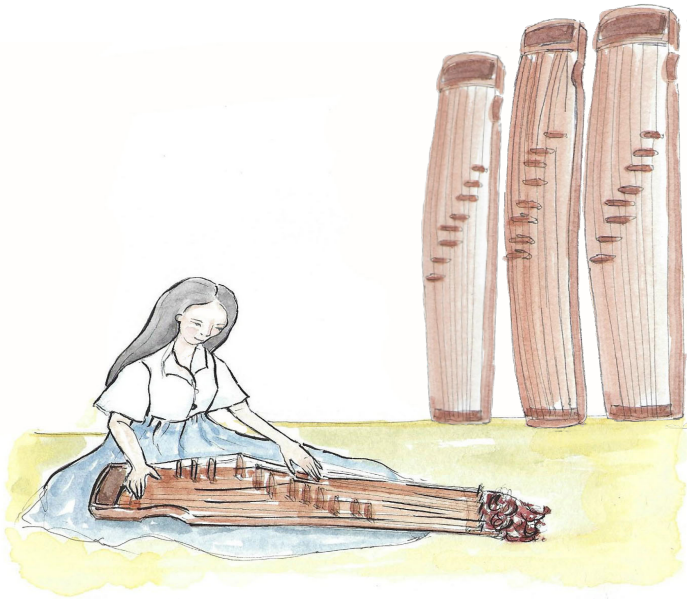
펀치니들(Punchneedle)은 천에 색실을 췌 바늘로 구멍을 뚫어가며 수놓는 방법이에요. 한 방향으로 찌러가며 수놓으니 훨씬 편리해요. 실을 잘라서 완성하면 포근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딱 좋은 소품이 만들어져요.

‘곰곰한 하루’ 공방에 가면요,

작은 의자에 앉아 곰곰이 수놓는 혜영 씨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술을 담고 전통을 닮다

류 다 인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김해에서 ‘예담’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예술을 담고, 전통을 닮은 예담에서는 누구나 국악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수강생은 전공자도 있으나 대부분 일반 시민이에요.

가야금을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친숙하고 재밌게 수업해요.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수업에도 힘쓰지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가야금, 현악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어 쉬운 지도 방법을 찾았죠.

땅다당따 당따~

8현 가야금 튕는 소리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시민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공연한 적 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연 연습을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영상 촬영으로 끝내야 했을 때는 모두가 아쉬워했어요.

“여러분, 연습도 이제 끝났어요. 애쓰셨어요!”

“선생님, 좀 더 하고 싶어요, 아직 배울 게 많잖아요.”

다들 배우려는 의지가 느껴져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눈빛을 보면 그만둘 수 없어 3년째 수업하고 있어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함께 살아가는 김해시민이니깐요!

한땀 한땀 장인의 정신으로

배정임



숨을 참은 수만큼 바늘땀 수가 채워져요. 집중, 집중...
드디어 마지막 한 땀에 다다랐어요. 완성된 작품을 가만히 만져보아요. 나만의 명품이죠. 가죽 공예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

을 만드는 매력적인 일이에요.

처음에는 문화센터에서 가죽 공예를 배웠어요. 작품을 만들 때마다 흥미가 더해져 전문 과정까지 배우게 되었죠. 지금은 지도해준 스승의 공방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개인 작품 주문도 들어오고 강의도 해요. 생각해 보면 가족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죠.

잠자리 휘이휘이 도는 하늘
들꽃 춤추는 바람
네 목소리로
답해주니 좋더라
못 들은 척해주던 떨리는 목소리
우르르 소낙비 되고
후두둑 메뚜기 날아
파다닥 내가 놀라도
답해주니 좋더라
그날

‘고백’이라는 시의 일부분이에요.

문학을 막연하게만 좋아했었는데, 신경문학회와 인연이 되어 심사 받고 시인으로 인정받았어요. 해마다 시화전과 동인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가며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죠!

김해문화 수집가

양민주



고등학교 때부터 글을 쓰고 있어요. 첫 수필집 『아버지의 구두』는 30년의 인생을 기록한 책으로, 상을 많이 받았죠. 그 책에 실린 ‘적당한 바로’는 고등학교 때 처음 쓴 수필이라 의미가 깊어요.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87-8번지에는
차산 배전의 매화가 가름하게 피었고
아석 김종대의 난초가 향기를 풍기고
우죽 배병민의 국화가 깔깔 웃고 있으며
수암 안병목의 대나무가 바람에 날리고
운정 류필현의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다
지켜보는
한산 스님의 달마는 눈망울이 커지는데
내 친구 범지의 개구리는
배를 뿔룩거리며 노래한다

‘김해갤러리’라는 시예요.

퇴직하고 수로왕릉 근처에 김해갤러리를 열었어요. 벽면에는 그림이 빼곡해요. 세월이 읽히는 고서화에서 묵향이 날 것만 같아요.

오랫동안 김해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수집하고 있어요. 소중한 작품이지만, 실제 연구를 위해서라거나 절실하게 수집하는 이들이 찾아오면 팔기도 해요.

김해갤러리는 김해 문화 자산을 모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으로 음악 봉사하는

이영송



‘김해 음악 장독대’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어요.
운영하는 피아노 입시 학원에서 연을 맺은 제자들과 결성한 봉사 단
체예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관객은 침대에

누운 환자들이에요.

창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음악치료 목적의 연주 요청을 받았어요.
매번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지만, 슬픈 일도 생겨요. 연주 중에 삶
의 끝자락을 놓고 떠나는 환자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도 연주를 멈출
수가 없어요. 노래하는 분들이 울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은 깜짝 놀라
서 벌벌 떨기도 하지요. 우리가 연주하는 동안 병상 위에서 지휘하는
환자도 있어요. 음악을 들으며 잠시 고통을 잊는가 봐요. 작은 봉사
로 위로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죠.

‘행복 두드림’이라는 병원 로비 콘서트도 열어요. 연주자들이 수고
비는 거의 못 받는 부탁에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달려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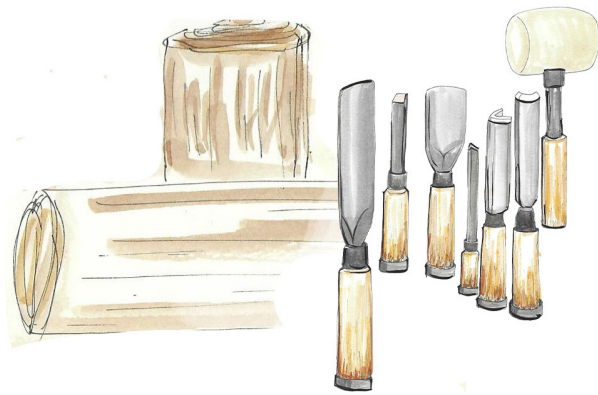
참 감사하죠.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 좋은 분들도 만나게 돼요. 2020년에는
김해시장 표창장도 받았어요. 앞으로도 김해에서 계속 봉사하고 싶
어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요!

불상의 어머니

정봉환



‘부처님’

가만히 눈을 감고 부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부처상은 여러 모습이 있어요. 불교 조각

가의 손길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서지요.

우연히 조각하는 장면을 보고 반해서 조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독수리’를 조각했죠. 매서운 눈매에 날카로운 부리가 돋보이는 멋진 독수리 조각에 성공했었죠. 이후 누군가 불교 조각을 추천해주었고, 현재까지 김해에서 불교 조각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 조각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심지어 “겁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존엄한 부처를 그리거나 조각하는 일이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부처님 조각은 ‘만든다’라고 하지 않고, ‘조성한다’라고 해요.

부처를 조각할 목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딱! 부처님이 보여요. 눈으로 밀그림이 그려져요.

불상을 조성하는 사람을 절에서 ‘불모(佛母)’라고 해요. ‘불상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이처럼 부처상 조각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진영시장 통기타 가수

정성우



어릴 적 말주변은 없었지만, 노래 부르는 건 좋아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기타를 사주셨을 때는 흥미가 없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차르랑~!

친구가 기타를 멋지게 연주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반해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장사를 하면서 노래를 한 지 3년이 됐었나봐요. 오늘은 5일마다 열리는 진영 장날이에요. 기타 조율로 장날은 시작되죠.

‘땡 띠라리 땡땡 ~’

‘촛라링~’

시장 사람들은 기타 연주가 기다려진다고 해요. 어린이들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가, 어른들에게는 옛날을 추억하는 시간이 되지요.

앞으로도 장날이 되면 어김없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를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게도 지키면서요.

자연의 이름으로 산딸기를 키우는 시인

최석용



김해 신어산 자락 장척계곡에서 산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산딸기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어요. 작목반을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한 뒤로 연간 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김해 특산물이

되었답니다. 산딸기는 다른 과일보다 가공법이 드물었어요. 지금은 와인, 식초, 잼, 발효액, 주스까지 산딸기 가공 제품을 내놓고 있어요. 농식품 현장학습교육장(WPL)으로 지정돼서 농업인은 물론 농대생, 일반인 교육도 하고 있답니다.

산딸기

뉘 오시는 임일까
 두 눈이 하얗게 멀도록
 오월을 기다려
 붉은 속내 가슴 태우며 기다린 연정
 유월의 붉은 해를 다 취하고
 타오르는 노을처럼
 빨갭게 익어버린 산딸기
 더운 가슴 풀어
 바람에 흔들리는
 빨간 속내의 유혹
 뉘라서
 손끝에 찢리는 아픔을 마다하라
 한입 물어
 붉은 유월이 내 것인데

늘 시를 쓰고 있어요. 『행복한 하늘』 시집에는 언어 기교가 없는 서정적인 시가 들어 있어요. 자연을 담은 언어가 시가 되지요. ‘읽는 이들의 마음에 와닿는 시’라는 평을 듣곤 해요.

“저는 비가 오면 꼭 글을 쓰고 싶어요.

우리 아내는 비 오면 눈에 가서 물꼬를 터야지
당신은 글이나 적고 있느냐며 저를 나무라기도 하죠.”

잊지 못할 순간에

한 예 스



브랜드 이름을 좀 알아볼까요?

비가 그칠 때 가끔 무지개를 볼 수 있지요. 물방울들이 빛을 반사하면서 일곱 가지 색이 그려지는 걸 무지개라고 하는데, ‘포그보우’는 하얀 무지개를 말해요. 안개처럼 작은 입자의 풍성한 물방울이 무지개를 만든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죠. 포그보우를 보면,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마주하게 되겠지요.

눈치채셨나요?

포그보우 제품에는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물론 김해의 이야기도 들어있죠! 시간이 내려앉는 포그보우에 오면 만날 수 있는 글귀가 있답니다.

‘Never forget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말자!)’

‘포그보우’에서 김해 이야기가 담긴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원래 디자이너였어요. 지금도 제품을 디자인하고 있으니 제품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겠지요.

미소처럼 솜씨가 이쁜

허 승 주



승주는 자폐성 발달장애를 앓았어요. 최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어요. 이것저것 시켜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였는데 잘 되었지 뭐예요.

“와~하하하”

어느 날, 승주가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웃게 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아이들 가지고 노는 요술 점토였어요.

“아, 승주는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구나.”

공방 선생님이 손재주가 섬세하고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공방에 1년 이상 다닌 친구들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어요. 승주는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야 좋은 작품이 나와요. 창의력이 뛰어나고 솜씨가 세심한 편이죠.

승주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도자기 카페도 차리고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려고 해요. 캐릭터를 이용해서 먹음직한 젤리와 빵을 굽고 봉제 인형도 만들겠대요!

갓 구운 빵 냄새가 솔솔 나는 승주 카페, 우리 기대해요!

김해 가야금의 대모

황정숙



1988년 김해에 왔어요. 그때는 가야금 활동이 거의 없었어요. 김해 시내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시작으로 '김해문화원'에서 강습을 맡았어요.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정기연주회도 열고, 각종 문화 행사

에서 공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요.

'가야금'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가야'죠!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나라 이름을 따서 만든 악기는 가야금 밖에 없어요. 김해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가야국이었잖아요.

아쉽게도 가야금 전공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립가야금연주단'을 창단하게 됐어요. 그해에 '김해어린이 가야금연주단'도 함께 창단했지만 외환위기 당시 해체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계속 유지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바람이 있다면 조선대와 그 주변에 '가야금 거리'가 조성되고 가야금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세워졌으면 해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청아한 가야금 선율이 흐르는 도시의 정경을 상상해요.

김해 거리에 가야금 음률이 더해지면
문화예술의 꽃이 찬란하게 피겠죠!

part 02

문화예술의 향기 속 대중음악 예술인

김성훈



창~창창 창! 드럼을 시작으로 밴드 연주가 시작됐어요. 시그널 음악이 깔리고 한음, 한음이 심장을 두드려요. 점점 뜨거워지는 혈맥! 음악으로 젊음을 불태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피아노를 배우면서 음악 인생을 시작했고, 선생님의 자상한 가르침 덕에 피아노 연주에 자신이 생겼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밴드 활동을 시작했어요.

문화예술 중에서도 음악은 사람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1970~80년대는 서양 대중음악이 많이 들어왔던 시기죠. 록 그룹사운드가 유행했고 대학가에는 통기타 연주가 한창이었던 시절이에요. 30대부터 기획사를 운영한 덕에 경제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을 할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음악과 시는 맥락을 잇는 예술입니다.
성훈 씨는 음악가이자 시인이예요. 등단작 ‘기억’을 함께 읽어요.

기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그리움이고
어떤 이에게는 슬픈 일이다
기억 저편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를 위해
망각이란 단어는 참 고마운 글자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당연한 이치를 가끔
망각해 버린다

음악과 시어가 없는 인생은 얼마나 삭막할까요!

복을 비는 진영의 희망지기

김애리



김해 진영은 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웃음꽃 피는 마을이에요. 어르신들에게 동화책을 만들어 주고, 어린이에게 전래 놀이도 가르쳐 주며 함께 놀았죠. 엄마들이 시간을 내어서 만든 생활문화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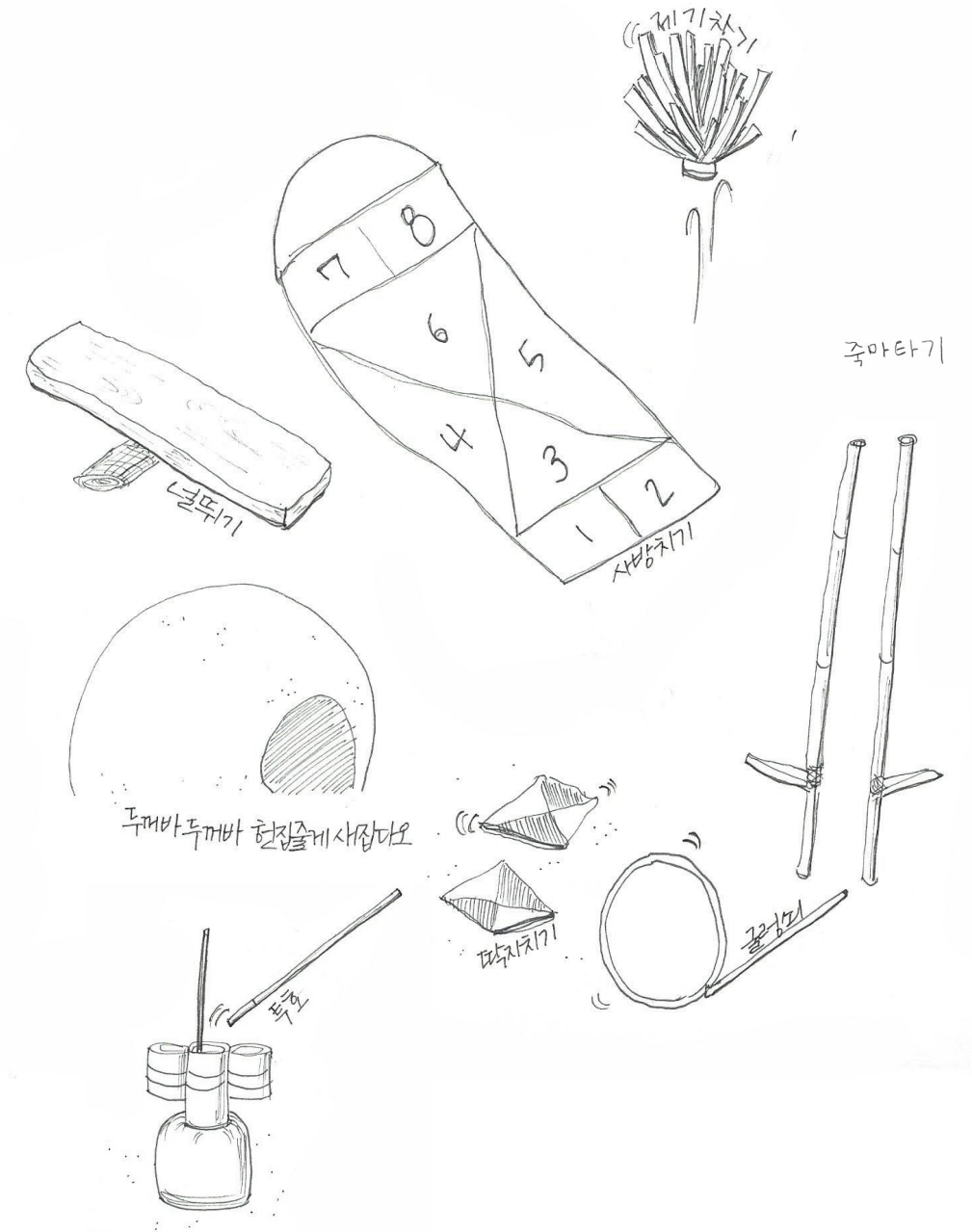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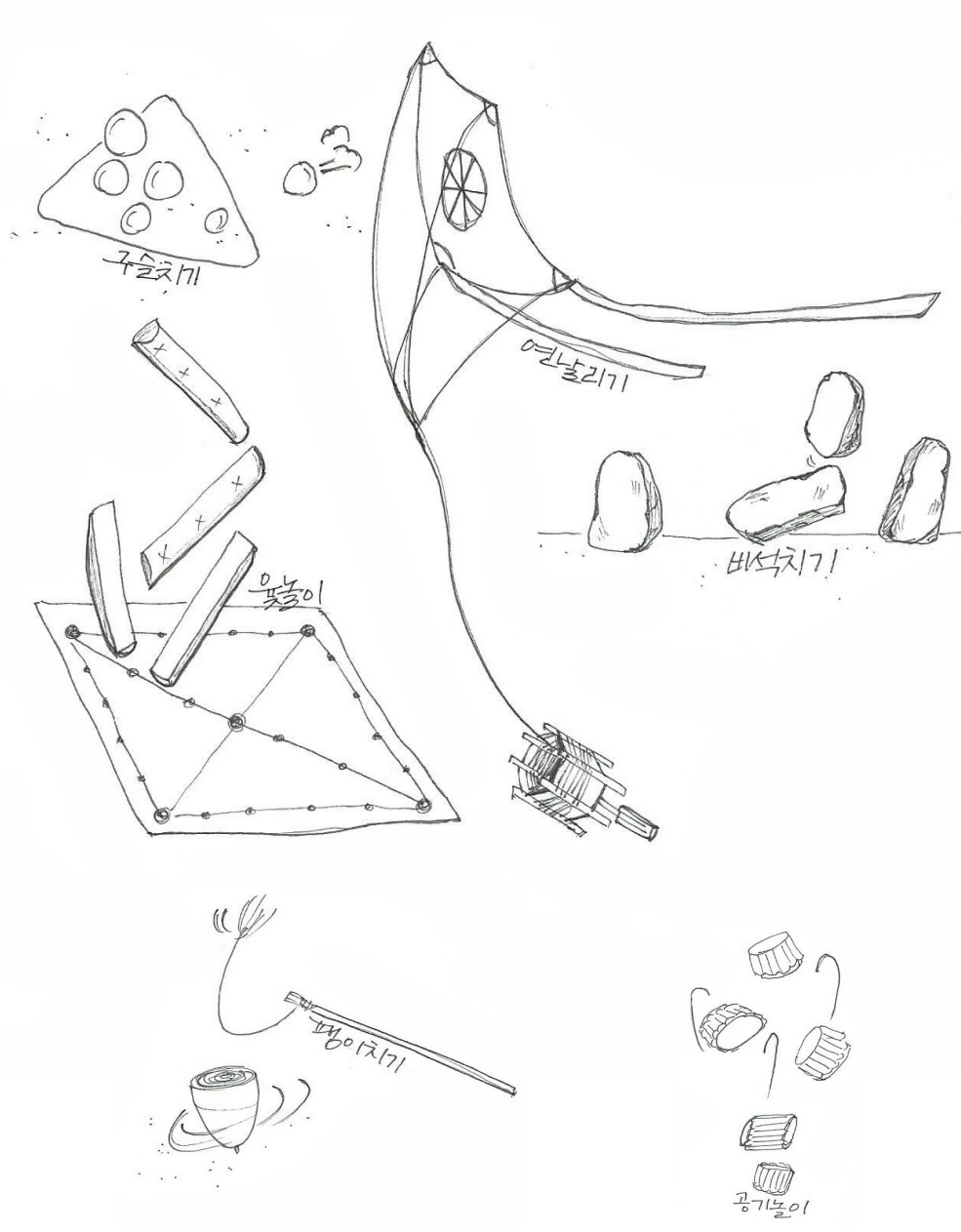
진영 어르신들의 추억을 따라가면 영화관이 나와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때 세 군데나 있었다고 해요. 진영은 옛날에도 낭만과 감성이 깃든 고장이었어요. 마을 어른들의 희미한 기억을 살려 영화 상영관을 운영했어요.

마을 극단도 만들었어요. 적은 예산이 걱정이었지만, 열정 하나면 충분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연습에 참여했거든요. 대사를 외우고 또 외우는 어르신들 모습에 울컥 감동이 차올랐어요.

김해 극단 '이루마'에서 연기 지도를 해주었고, 한빛 도서관의 도움으로 연극을 무대에 올릴 수 있었죠. 사각의 무대는 따뜻한 정으로 가득한 행복의 시간이 되었죠. 주천강 길 따라 이웃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산책길은 진영의 선물이죠.

진영은 마음씨 고운 사람들이 서로 등 기대어 사는 아늑한 곳이에요!

<다 같이 놀자!>



스토리텔러 (Storyteller)

박경용



오랫동안 문학인(수필가)으로 활동하며 김해문인협회를 이끌었어요. 가야 설화에 관심을 두고 가야사(史)를 스토리텔링하고 있어요. 다섯 가지 가야 정신인 국제성, 예술성, 민주성, 고도기술성, 배려성

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특히 배려성은 프랑스 툴레랑스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데, 툴레랑스는 ‘배려’라는 뜻 외에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남을 배려하면서 오는 약간의 고통을 감내하는 거죠. 이런 정신이 가야사에도 녹아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예술단체의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자연스럽게 직접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죠. 오페라 혹은 오페레타의 대본이어서 리브레토(Libretto)가 되겠어요.

최근에는 ‘남명재단’에서 극본 요청을 받았어요. 창작 마당놀이 <아! 남명>의 극본을 써서 10월에 ‘남명정신문화예술제’에서 공연을 올렸어요. 민속극에 서구 뮤지컬을 접목하려는 고민이 들어간 극본이에요. 예술 종사자에게 잊지 말아야 할 명언이 있어요. 카네기 홀의 연출자가 한 말이죠.

‘커튼이 오르고 25분 안에 관객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문화의 다양성을 창출하는

신현승



행복한 세상은 '다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김해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죠. 김해 같은 지역사회의 발전에는 시민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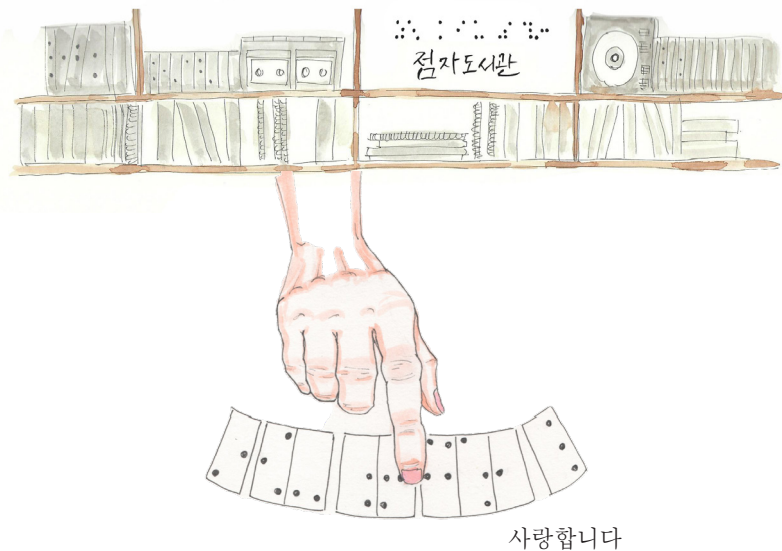
현승 씨는 원래 입시 학원을 운영했어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을 깨달았죠.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행복은 교육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평소에 진로 교육을 하면 가슴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조언을 잊지 않아요.

김해에서 시민협의체를 꽤 많이 만들었어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요. 다양한 문화, 공간, 예술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꾀하고 있어요.

지금도 김해의 발전을 위한 도전을 고민하는 중이에요!

특별한 목소리 낭독 봉사

여 채 원



전화기 너머에서 전해오는 목소리만으로 상대방 모습을 짐작해 본 적 있나요? 목소리는 지문처럼 사람마다 음색이 달라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저마다 특별함을 가지고 있죠.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가 제각기 다른 것처럼요.

채원 씨의 목소리는 봄날을 기다리는 꽃씨 같아요. 시각장애인들 가슴에 꿈과 희망을 안겨주기 때문이지요. 정호승 시인의 '봄길'을 가만가만 따라가 볼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밤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 같은 목소리지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낭독 봉사가 8년 정도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산점자도서관에서 청소년들에게 도서를 읽어주었죠. 김해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연이 닿아 감동이 담긴 글, 힘을 주는 글 등 낭독한 CD를 2집까지 만들었어요.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수필가나 시인이 있어요. 한 번은 시각장애인 작가분과 토크쇼를 하게 되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얼굴에 흉터가 많았어요. 보이지 않으니깐 부딪혀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상처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 경험이 채원씨를 지금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장애인들과 뜻을 모아 낭독공연을 해보기로 했어요. 모두 한마음이 되어 외쳤어요.

‘그래, 늘 받기만 하는데
우리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보자.’

11월 4일은 점자의 날이에요. 장애인들과 함께 낭독공연을 했어요. 낭독극은 낯선 분야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해서 걱정했지만, 흔쾌히 받아주셨고 시민들에게 선물이 되었어요.

김해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신청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죠. 또박또박 전해지는 영화 해설이 소통의 벽을 뛰어넘는 기회가 되었지요. 다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채원 씨는 이렇게 말해요.

“장애인은 늘 도와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배려가 필요할 뿐이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랍니다.”

가슴으로 귀로 볼 수 있게 목소리로 세상을 스케치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지요!



김해여성문화의 산실

최 선 화



양성평등 시극 ‘가락국기’가 무대에 올랐어요. 피아노 연주로 배경 음악이 깔리고, 이어지는 최선화 관장의 내레이션이 공연을 열어요.

“이천 년 역사 가운데 아직도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허황옥 그림 앞에서 미소 짓는 선화 씨, ‘김해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여성과 장애인, 노인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열려요. 물론 남녀 평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위해 <가락국기>, <오! 나의 황옥이여> 등 시극도 무대에 올리고 있어요.

허왕후가 김해 최초의 다문화 여성이잖아요. 기록을 살펴보면, 그 시절에도 ‘부부별산제’가 있었어요.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선택해서 따랐어요. 우리나라 양성평등의 시초가 아니었을까요?

“과거와 현재의 공간과도 이어지는 김해가 진짜 역사문화도시예요.”

김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너를 상상하며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재)김해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발행처 (재)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060 김해문화의전당 M층

Tel 055-339-2042 / Web 문화도시김해.kr

기획 김해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진행 김지영, 장연정

인터뷰 진행 / 이서후, 허민지

그림 김지희 / 글 성혜경

편집 옥은정

제작 오케이북아트

이 책은 2022 문화도시조성사업 중 [김해문화인물 7 ~ 8]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서후 님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글과 그림을 구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센터 블로그 바로가기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와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